

[준PO]불운 시달리던 임찬규, 가을에도 반전 없었다

등록 2021.11.07 15:41:14

준PO 3차전 2½이닝 1피홈런 3실점



[서울=뉴스시스] 고범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3차전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3회초 LG 임찬규가 교체되고 있다. 2021.11.07. bjko@newsis.com

[서울=뉴스시스] 김주희 기자 = 시즌 내내 불운에 시달렸던 임찬규(LG 트윈스)가 가을야구에서도 반전에 실패했다.

임찬규는 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쉐 KBO리그 준플레이오프(준PO) 3차전에 선발 등판했다.

팀의 운명이 걸린 경기에서 중책을 맡았다.

시리즈 전적 1승1패로 맞선 가운데 3차전 패배는 탈락을 의미한다.

그러나 임찬규는 2½이닝 4피안타(1홈런) 2탈삼진 3실점에 그친 뒤 빠르게 교체됐다.

임찬규는 1회부터 선제점을 내줬다. 선두 정수빈에 중전 안타를 맞고, 후속 호세 페르난데스에게 우중간 2루타를 허용해 실점

했다.

이후 두산의 중심타선을 모두 범타로 잡아낸 임찬규는 2회를 삼자범퇴로 마쳤다.

3회를 넘기지 못했다.

선두 박계범에게 우익수 방면 2루타를 맞았다. 정수빈을 좌익수 뜯공으로 처리한 임찬규는 1사 2루에서 다시 마주한 페르난데스에게 또 당했다.

1볼에서 페르난데스에게 던진 2구째 직구는 페르난데스의 방망이에 걸려 오른쪽 펜스를 넘어가는 투런으로 연결됐다. 스코어는 1-3.

'내일이 없는' LG는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임찬규를 강판했다. 준PO 1차전에 선발 등판했던 앤드류 수아레즈가 구원으로 마운드를 이어받았다.

임찬규는 올 시즌 17경기에 등판해 1승8패 평균자책점 3.87을 기록했다.

6월22일 SSG 랜더스전(7이닝 1실점)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둔 뒤 더 이상의 승수를 쌓지 못했다.

지독한 불운에 시달렸다. 잘 던져도,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기가 많았다. 승리 요건을 갖추고 내려오면 구원이 역전을 허용해 승리가 날아갔다.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고 정규시즌을 마무리한 임찬규는 내심 반등을 기대했지만, 포스트시즌에서도 진한 아쉬움만 남기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